



#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이상직



요약  
SUMMARY

## 01 목적

-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1차)를 활용해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의 관계를 확인함
- 성별 분업이 전제된 혈연 중심의 사회적 지원 관계와 낮은 수준의 사회단체 참여 관계가 특징임

## 02 사회적 지원 관계망

- 물질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요 지원자로 꼽힌 이는 배우자와 어머니, 딸, 친구 등임
- 이웃이나 직장동료, 공공기관 등 비혈연관계의 역할은 크지 않음
- 나이가 많아지면서 주된 지원자는 어머니와 친구(청년)에서 배우자와 공적서비스(중년), 자녀(노년)로 바뀜

## 03 사회단체 참여 관계망

- 15세 이상 한국인의 절반은 사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음
- 가장 많이 참여하는 단체는 동창회·향우회와 같은 학연·지연 기반 단체임
-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활발하게 참여하나 학부모회나 종교모임, 시민·지역단체 등에서는 여성의 참여 수준이 높음
-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기는 30-50대임

## 04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 물질적, 도구적, 정서적 필요 상황 모두에서 의지할 이가 있는 사람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세 상황 모두에서 의지할 이가 없는 사람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일정 수준까지는 참여하는 사회단체 수와 행복감이 비례 관계를 보이거나 참여 사회단체 수가 6개 이상인 경우부터는 둘이 반비례 관계를 보임
- 사회적 관계와 행복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역사적·비교사회적 연구를 꾸준히 추적해나갈 필요가 있음

PART

I

##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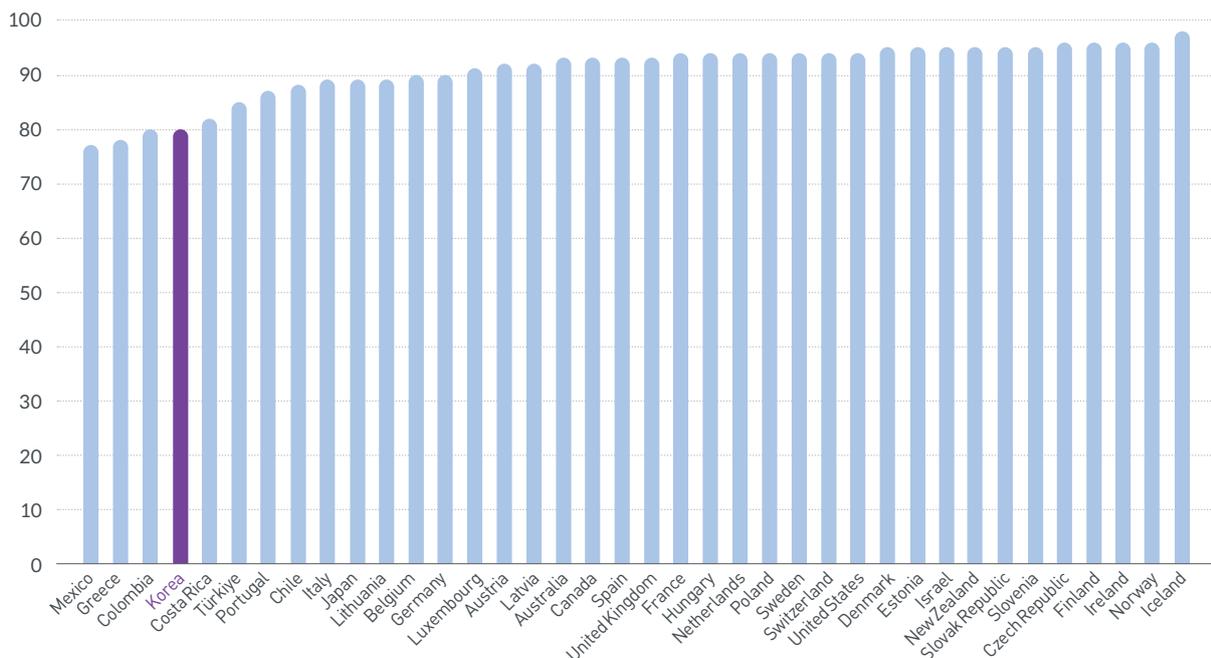
### ○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의 관계를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로 확인해보고자 함

- 사회적 관계는 행복감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한준 외, 2014; 박민진·민보경·정우성, 2017)
- 비교사회적 맥락에서 한국은 사회적 관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그림 1])<sup>1)</sup>
-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함

-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의 관계는 단선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함(한준 외, 2014; 이상직 외, 2016)
- 사회적 관계를 두 차원(사회적 지원 관계/사회단체 참여 관계)으로 측정하고자 함
- 행복감도 두 가지 방식(전반적 행복감/전반적 삶의 만족도)으로 측정하고자 함

[그림 1] 지원 관계망의 질(OECD 회원국)



자료: Gallup World Poll(2020년)

1)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으로 측정함(<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PART  
II

# 자료와 변수

## ○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 1차(2021년)

- 8,162개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18,442명 가운데 17,357명이 조사에 참여함(허종호 외, 2021: 36)<sup>2)</sup>

## ○ 사회적 관계 측정 1: 사회적 지원 관계망

-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는지를 측정하고자 한 것(김이선·한신갑, 2014)
- 상황은 물질적 지원(돈 빌릴 일이 있을 때), 도구적 지원(집안일 부탁할 때), 정서적 지원(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으로 구분됨([그림 2])
- 1순위 응답 값만 고려하고 총 29가지 관계 대상을 8개 범주로 묶음<sup>3)</sup>

[그림 2] 사회적 지원 관계망에 대한 설문 문항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귀하는 다음 중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먼저 연락하고 싶은 순서대로 두 분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당하는 보기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항목	첫 번째	두 번째
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보기

(01) 배우자	(11) 본인의 여자형제	(21) 성직자
(02) 본인의 아버지	(12) 배우자의 남자형제	(22) 고용주
(03) 본인의 어머니	(13) 배우자의 여자형제	(23) 정부 또는 공공서비스기관
(04) 배우자의 아버지	(14) 기타 혈연관계의 친척	(24) 은행 또는 여타 금융기관
(05) 배우자의 어머니	(15) 기타 혈연관계가 아닌 친척	(25) 사채업자
(06) 딸	(16) 친한 친구	(26) 동네병원 의사 또는 가정의
(07) 아들	(17) 이웃	(27) 정신과 의사 또는 전문상담원
(08) 며느리	(18) 직장동료	(28) 자조집단 (예: 금연 동아리)
(09) 사위	(19) 파출부 또는 파트타임 인부	(29) 기타 (누구: )
(10) 본인의 남자형제	(20) 사회복지단체	(99) 없음

2) 데이터셋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허종호,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1 [데이터 세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자료제공기관], 2022-05-09,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1-0003-V1.0>.

3) ① 배우자, ② 부모(배우자 부모도 포함), ③ 자녀(며느리, 사위도 포함), ④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타 친척도 포함), ⑤ 친한친구, ⑥ 이웃/직장동료, ⑦ 기관(보기 19~보기 29), ⑧ 없음

○ 사회적 관계 측정 2: 사회단체 참여 관계망

- 어떤 단체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한 것([그림 3])
- 응답값을 참여/비참여로 구분함<sup>4)</sup>

[그림 3] 사회단체 참여 관계망에 대한 설문 문항



귀하는 다음의 각 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항목	소속된 적이 없음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음	간혹 참여	활발히 참여	매우 활발히 참여
1) 동창회, 향우회 혹은 종친회	①	②	③	④	⑤
2) 동호회, 스포츠 및 취미 단체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①	②	③	④	⑤
4)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회	①	②	③	④	⑤
5) 종교 모임	①	②	③	④	⑤
6)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반상회, 주민조직 등)	①	②	③	④	⑤
7)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단체	①	②	③	④	⑤
8) 교육 혹은 학술단체	①	②	③	④	⑤
9) 환경단체 혹은 여성단체	①	②	③	④	⑤
10) 정당	①	②	③	④	⑤
11)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④	⑤

○ 행복감 측정: 전반적 행복감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 행복감과 만족감은 성격이 다를 수 있기에 두 문항을 함께 살펴보고자 함<sup>5)</sup>
- ‘전반적 행복감’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에서 ‘매우 행복하다’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함
-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최악의 삶’에서 ‘최상의 삶’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함

4) ‘소속된 적이 없음’과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음’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혹 참여’, ‘활발히 참여’, ‘매우 활발히 참여’는 참여하는 것으로 분류함  
 5) ‘전반적 행복감’이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가깝다면,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생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가까움



## 사회적 지원 관계망

### ○ 주요 지원자는 배우자와 어머니, 딸, 친구임

- 모든 상황에서 '배우자'가 주된 지원자로 꼽힘([표 1])
- 물질적 지원자와 도구적 지원자로는 '어머니'가, 정서적 지원자로는 '친구'가 꼽힘
- 아버지와 아들 등 남성은 순위에 들지 않음

[표 1] 지원 상황별 지원자 집단(%)

	 물질적 지원 (돈)	 도구적 지원 (집안일)	 정서적 지원 (상담)		 물질적 지원 (돈)	 도구적 지원 (집안일)	 정서적 지원 (상담)
배우자	23.1	46.1	21.1	여자형제	2.8	1.9	3.7
아버지	5.7	1.6	0.4	(배우자) 남자형제	0.1	0.0	0.1
어머니	18.0	23.9	5.4	(배우자) 여자형제	0.1	0.1	0.1
(배우자) 아버지	0.2	0.0	0.0	기타 친척	0.2	0.2	0.2
(배우자) 어머니	0.3	0.2	0.1	친한 친구	6.2	3.2	50.9
딸	1.9	5.0	3.5	이웃	0.3	0.5	2.9
아들	3.7	3.4	1.0	직장동료	0.4	0.2	2.3
며느리	0.0	0.2	0.3	기타(은행 등 기관)	17.7	7.4	1.7
사위	0.4	0.0	0.1	없음	16.6	5.2	5.5
남자형제	2.3	0.6	0.8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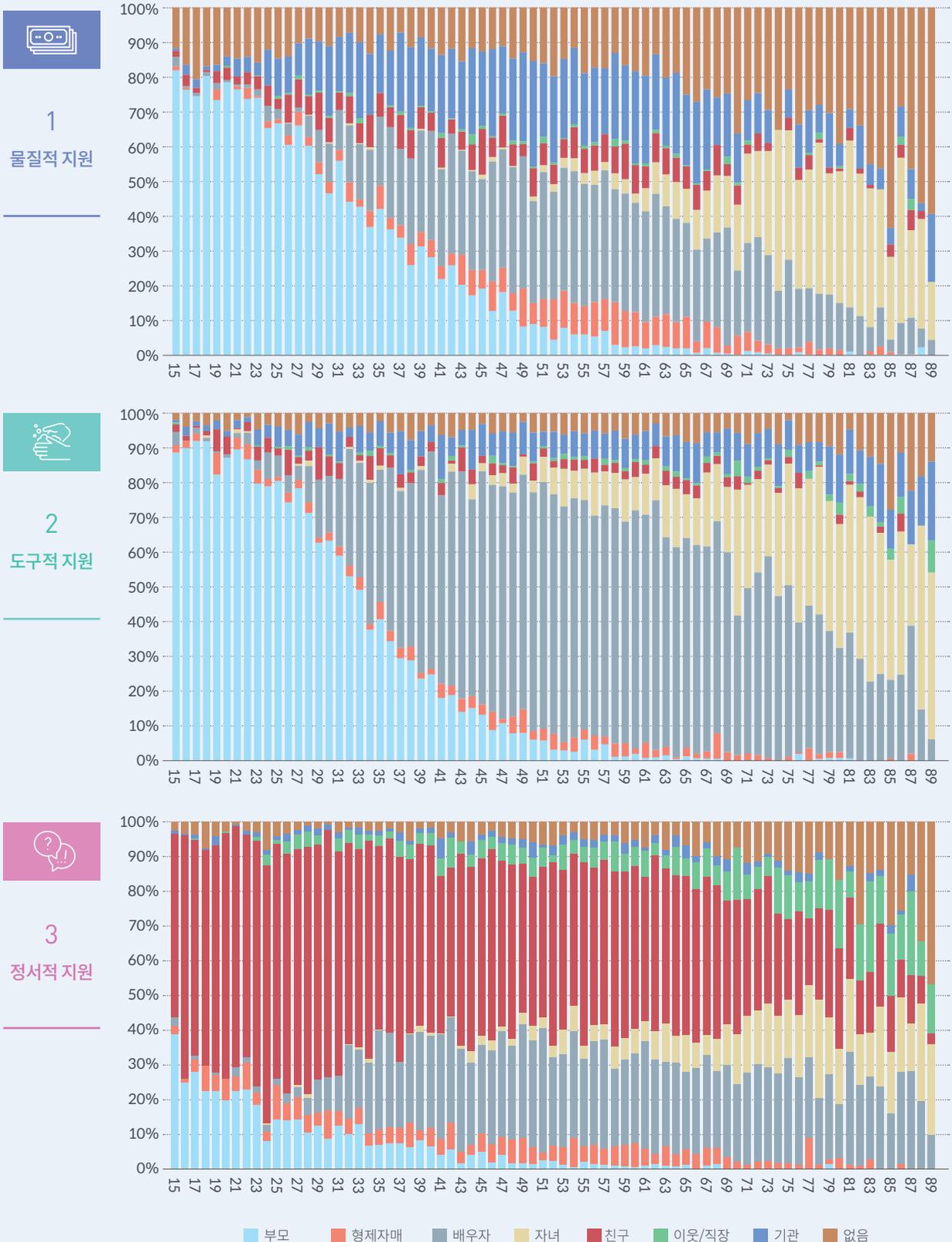
### ○ 직계 관계 외 대상의 역할은 미약함

- 혈연관계는 도구적 기능이 강한 반면 정서적 기능은 약함
- 비혈연관계는 도구적 기능이 약함

### ○ 사회적 지원 관계망의 구조로 연령대를 구획해 볼 수 있음([그림 4])

- 15~25세는 어머니와 친구에 의지하는 시기로, 이 연령대에서 지원자가 없는 이도 5~10% 정도 있음
- 26~50세는 어머니와 친구의 역할을 배우자가 점차 대체하는 시기이자 공공·민간 서비스의 지원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기임
- 51~70세는 자녀가 지원자로 등장하는 시기이면서도 지원 관계가 점차 끊기는 시기이기도 함
- 70~98세는 자녀가 배우자를 대체하는 가운데 친구나 공적 기관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지원 관계망이 해체되는 시기임

[그림 4] 나이에 따른 지원 집단 비중 변화(도구적, 물질적, 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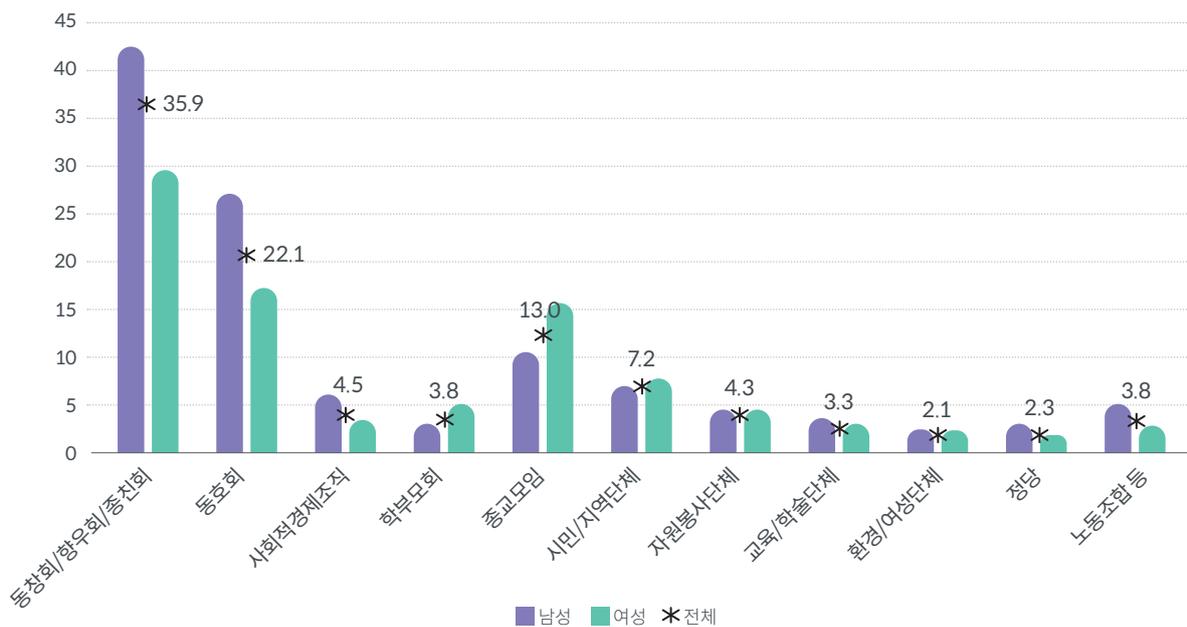
PART  
IV

# 사회단체 참여 관계망

##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단체는 지연·학연 기반 단체임

- 동창회/향우회/종친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약 36%, 동호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약 22%,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이 13%임
- 시민·지역단체, 환경·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 정당 등 정치사회단체 참여율은 낮음
-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 수준이 높으나 학부모회나 종교모임, 시민·지역단체, 환경·여성단체에는 여성의 참여 수준이 높음

[그림 5] 사회단체 종류별 참여수준(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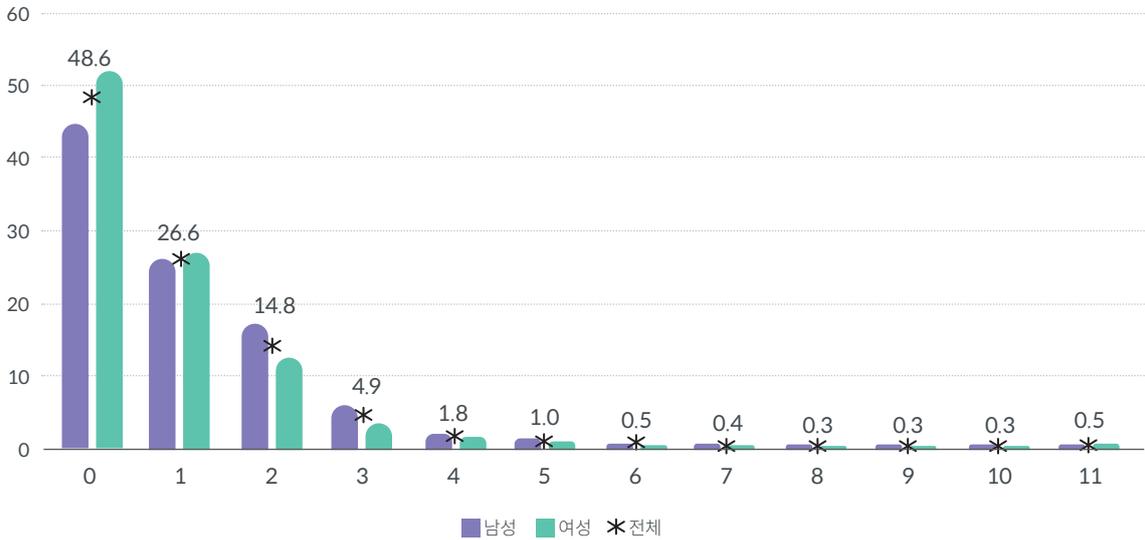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2021년)

## 한국인의 사회단체 참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음

- 15세 이상 한국인의 절반은 사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음<sup>6)</sup>
- 1개 단체에 가끔이나마 참여하는 이들이 25%이고, 2개 단체에 참여하는 이들이 15%이며, 나머지 10%는 3개 이상 단체에 참여함

6) 여기에서는 이 비율을 '낮은 참여 수준'의 근거로 해석했지만 참여 수준을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비교사회적 분석이 필요함

[그림 6] 참여단체 수별 비중(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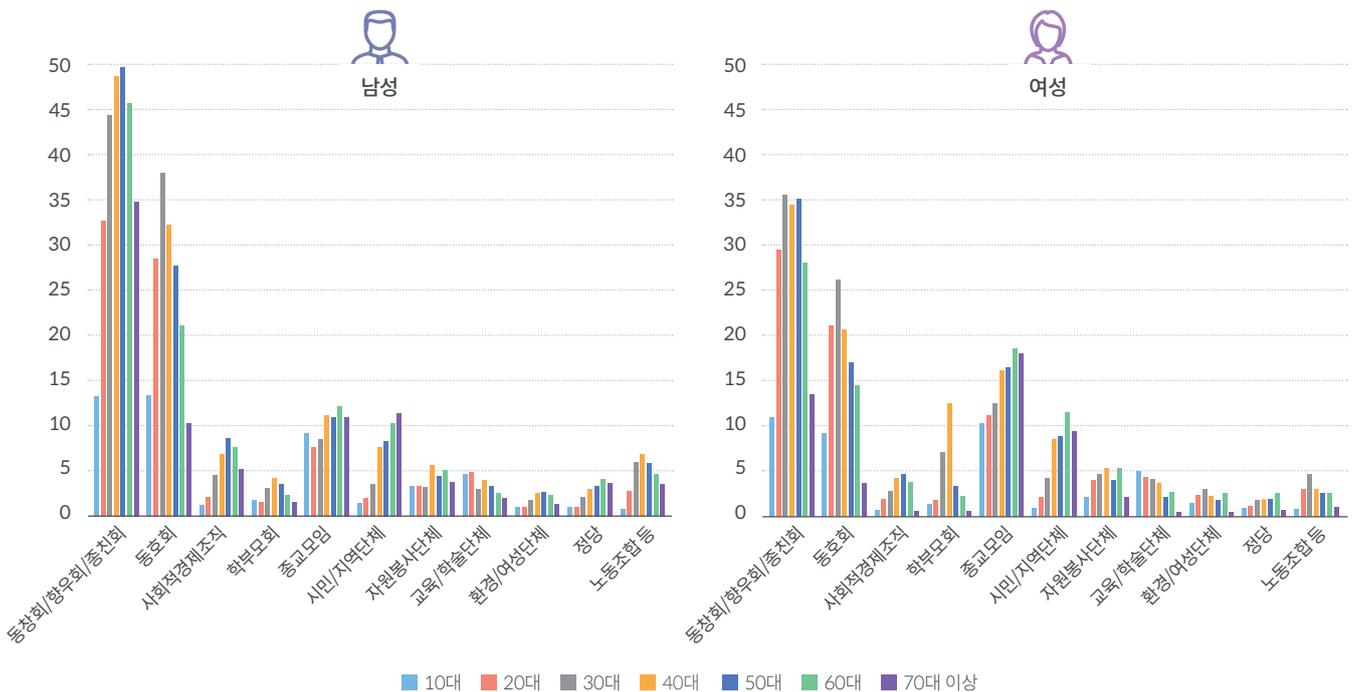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2021년)

○ 사회단체에 주로 참여하는 시기는 30-50대임

- 사회적 네트워크로 기능하는 동창회/향우회에는 40-50대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동호회에는 30대가 활발하게 참여함
- 여성은 10-20대까지는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참여하나 30대부터 낮아짐
-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의 비중이 높아짐(시민/지역단체, 정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나타남)

[그림 7] 사회단체 종류별 참여수준(성별, 연령대별)



PART  
V

#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 ○ 사회적 지원 관계망<sup>7)</sup>과 행복감

- ‘전반적 행복감’ 수준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 수준보다 높음
- 예상할 수 있듯이 물질적, 도구적, 정서적 필요 상황 모두에서 의지할 이가 있는 사람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세 상황 모두에서 의지할 이가 없는 사람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사회적 관계 수준별 차이는 ‘전반적 행복감’에서보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서 큼
- 사회적 관계 수준별 행복감 차이는 40-50대에서 가장 큼

[그림 8] 사회적 지원 관계 수준별 행복감(연령대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2021년)

7) 사회적 지원 관계망을 단순화해 물질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 상황에서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로 0~3점 척도의 ‘사회적 지원 관계 수준’ 변수를 구성한 후 관계 수준별로 행복감 정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함

### ○ 사회단체 참여 관계망과 행복감

- 참여 사회단체 수와 행복감은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나 선형 관계는 아님
- 일정 수준까지는 참여 사회단체 수와 행복감이 비례 관계를 보이거나 참여 사회단체 수가 6개 이상인 경우부터는 참여 사회단체 수와 행복감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참여 사회단체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행복감 수준이 다시 높아짐
- 참여 사회단체 수별 행복감 차이는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남

[그림 9] 참여 사회단체 수별 행복감(성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2021년)

PART  
VI

결론

- **한국인 사회적 관계의 특징: 성별 분업이 전제된 혈연 중심의 사회적 지원 관계와 낮은 수준의 사회단체 참여 관계**
  - 사회적 지원 관계망의 측면에서 볼 때 관계 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계 대부분은 혈연관계로, 특히 여성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 비혈연 관계의 역할은 미약함
  - ‘사적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관계망(사회단체 참여 관계망)의 측면에서 한국인의 관계 수준은 낮은 편임
  - 혈연관계의 역할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터와 삶터 등에서 다양한 지원 관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함
  
-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의 관계는 복합적임**
  - 사회적 지원 관계망과 사회단체 참여 관계망 모두 행복감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둘의 관계는 성별, 연령대별, 행복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회적 관계와 행복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역사적·비교사회적 연구를 꾸준히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김이선·한신갑(2014). “나이테 다시 그리기: 사회적 역할에 따른 연령 구분의 재설정.” 『한국사회학』 48(4):1-22.
- 남은영·이재열·김민혜(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1-33.
- 박민진·민보경·정우성(2017). “관계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민의 세대별 비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1-30.
- 이상직·전영우·정우연·한신갑(2016). “남녀 중학생의 학업성적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행복감.” 『교육사회학연구』 26(1):121-154.
- 한준·김석호·하상응·신인철(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1-24.
- 허중호·민보경·이채정·이상직(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 삶의질데이터센터 소개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 도래, 삶의 질 추구, 불평등 심화, 신종 감염병 등장 등 미래사회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및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는 삶의질 및 행복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연구를 추진하고 입법부 중심의 독립적 증거 기반 중장기 정책·입법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다.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학계와 국회 사이의 간격을 좁혀 국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국인의 행복조사 소개

사회적 지표로서의 행복은 국가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와 국가의 정책 간의 ‘연결고리’로서, 선진국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World Happiness Report 2021 기준 160여 개국 중 50위)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심층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왔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여 왔다. 2020년을 시작으로 조사된 원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자료원(<https://kossda.snu.ac.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